8-18-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시편 102:1-28
말씀제목: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녀들을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102 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깊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절부터 11 절까지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은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첫째가 "**외로움**"의 고난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주려 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육신의 썩을 것**"만 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다가 11 명의 제자들 외에는 다 떠나가니까 주님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주님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주님께 집 한 칸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올리브 산 꼭대기가 주님의 집이었고 거기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시다가 내려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미귀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와 보라**" 하셨지요. 그러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말라버리고 신음 때문에 뼈들이 살에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들판에 말라비틀어진 풀처럼 주님은 바짝 마르셨습니다. 주님은 빵을 먹는 것도 잊으셨습니다. 금식하셨지요. 먹을 것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펠리컨은 물 가에 사는 새인데 메마른 들판에 나와 있는 펠리컨 같다고 했습니다. 먹이가 없어 죽기 직전의 새사 광야의 펠리컨인 것입니다. 올빼미는 숲 속에 있어야 하는데, 사막에 있는 올빼미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괴롭고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역시 외로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간 대표적인 분인데, 나중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를 다 떠나갔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누가 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누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비방과 내던져 버려짐**" 이었습니다.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적하여 미쳐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하였나이다. 내가 재를 빵처럼 먹었으며 내 음료도 눈물로 섞였으니 이는 주의 분개와 진노 때문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8-11 절)
그 당시 주님의 고난이 오죽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내던져버렸다."고 했을 정도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고 천국 문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천국 길을 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그를 묻으려 하는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자신을 친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11 절까지는 이루어진 것이고 12 절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11 절까지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할 것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시온에 자비를 배푸는 것은 이스라엘에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히 존속하시며 주를 기억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시어 시온에 자비를 베푸시리니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정녕 그 정한 때가 옴이니이다."(12-13 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손대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선지자 스카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가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슥 2:8)

주님이 빼앗겼던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모든 이방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그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시온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상에 제사장 민족으로 세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며 그 곳의 먼지도 아끼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14-16 절)

주님께서 고난 후에 자신을 위하여 재창조 하시는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18 절)
재창조되는 사람들은 그 날의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우리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창조될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새 피조물들이 나타나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하시고 또 다시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히 2:11-13)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쇠약해지고 때로는 날들이 단축될 것 같고 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해야합니다:

"그가 내 힘을 길에서 쇠약케 하시며 내 날들을 단축하셨도다. 내가 말하였나니 오 나를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모든 세대를 통해 있나이다."(23-24 절)

시편 102 편의 결론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옛날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께서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은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씨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25-28)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히 1:1-2) 아멘! 할렐루야!